무릉도원 진입

(요15:1~8)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무릉도원 진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 하신 것에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이라는 말을, 좀 낯설게 하기를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무릉도원으로 진입해 들어가자! 무릉도원은 이상향이 아니다'
중국 사람들의 별천지 사상을 대변해주는 단어가 무릉도원 아닙니까?
그 별천지 사상이라는 게 이상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향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만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토피아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이 지향했던 이 땅에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향, 이 세상 현실을 뒤집어서 이루어 내는 그런 이상 국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습니다.
중국에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구체적으로 표현 된 것이 4~5세기에 걸쳐서 활동을 했던 중국시인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소개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하난성 무릉이라고 하는 곳에 어부가 살고 있는데 민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어느 날 강물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고기를 잡다가, 계속 깊이깊이 들어가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점점 계곡이 좁아지면서, 계곡 물가 양쪽으로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곡 양쪽 온 천지가 다 꽃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 꽃 전부가 하나 같이 복숭아나무 꽃입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신기해서 그 물줄기를 따라 계속 갔는데, 물줄기가 끝나면서 계곡이 맞닿는 곳에, 그 계곡 물의 근원이 되는 샘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조그만 동굴이 하나 보입니다.
동굴 입구에 갔더니 빛이 새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동굴에서 빛이 새어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에 차서 들어가는데,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동굴을 한참을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동굴이 끝나면서 끝이 안 보이는 대지가 펼쳐지고, 너무 정갈하게 손질이 되어 있는 논과 밭이 있고 뽕나무 숲이 있고 대나무 숲이 있고 사람들이 보이는데, 노인부터 어린 아이까지 그렇게 얼굴이 평화롭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별천지 세상을 봅니다.
그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관리에게 알려서 그걸 다시 찾는데, 복숭아꽃도 찾을 수가 없고 그 동굴도 찾을 수가 없고,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상상 속에서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도연명이가 도화원기를 쓴 게, 365년에 태어나서 420년 정도까지 살았으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300~400년 뒤에 활동한 양반 아닙니까?
그런데 300~4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바로 그 무릉도원을 찾아 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무릉도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평화스럽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제공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무릉도원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회복된 에덴과 무릉도원은 차이가 있지마는, 형식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
모든 사람이 평안 가운데 거한다.
이게 바로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 아니었습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격리 돼 있다는 겁니다 무릉도원이.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도 이 세상 안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사회와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으로 비슷합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별천지를 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이 사상 속에 동천복지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동천복지.
이 동천복지가 뭐냐 하면, 동천이 동굴 안에 별천지가 있고, 복지라는 건 천재지변이나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앙이 다 사라진 복된 땅이다.
즉, 동천벽지의 복지라는 것은, 동굴 안에 들어가서 발견 되는 별천지가 있는데, 그 곳에는 인간의 재앙이 인간 사회에 주어지는 모든 재앙이 다 사라진 복되고 평안이 가득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게 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앙인과 제자들의 삶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15장 전체를 총괄하는 주제로 제시를 하시고, 15장 마지막 27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8절까지는 첫째 부분에 해당 되는 겁니다.

첫째 부분은, 그렇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게 연합되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총체적인 주제에서, 어느 부분에 특별히 확대경을 놓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연합이라는 부분에 확대경을 놓고 얘기를 하십니다.
연합 그 자체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 하듯이 주님께 연합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4절과 5절과 6절과 7절까지 똑같은 말씀을 네 번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네 번을 반복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 그러면 '그리스도 밖'도 있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이 바울서신 전체를 총괄하는 하나의 키워드 중의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우리가 동굴을 쭉-빠져 나가서 그 동천복지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근데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밖도 있으니까 안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그리스도 안은 어디이며 밖은 어디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지, 안에 머물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으니까.
거하라는 말은 머물라는 얘기인데, 머물라는 말은 절대로 발걸음을 바깥으로 옮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에요, 거하라는 말이.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머물러 있는 걸 말합니다, 잠시 있으면서 왔다갔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은 어디이고 그리스도 밖은 어디 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 간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갑돌이 갑순에게 말합니다, '갑순 씨,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때, 갑순 씨는 주체적으로 갑돌이 마음 안으로 들어 간 적이 없습니다.
갑돌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갑순이 주체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갑돌이 갑순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들을 주님이 마음으로 좋아하시면, 사랑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 마음 안에 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보고 거하라고 하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어떻게 주체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좋아하면,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요.
아 미스 김이 새로 입사했는데, 노총각 이 대리가 볼 때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 둡니다.
근데 미스 김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대리가 자기를 마음에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도 모르는데도, 이 대리 마음 안에 미스 김이 머물고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내 안에 들어와 머물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 '안'이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 '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안과 밖이 구분되어지는 공간이 있고 영역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 공간이 어디고 영역이 어디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마음의 영역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관계할 때에 어떤 예수님을 관계합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고, 그 공생애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완성이 됩니다.

공생애의 모든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공생애, 이 땅에 내려 오셔서 사시던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상대합니다.
근데 그 주님만 관계합니까?
죽으셨다가 삼 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관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관계합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또한 관계합니다.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천하시는 그 행동에 국한된 주님만 관계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또한 관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고, 부활도 마찬가지이고 승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사건들이 갖는 영적인 실제 내용은 영원한 현재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을 보았던 베드로에게도 십자가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 보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도바울, 예수님은 사도바울을 역사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마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사도바울에게도 나를 위한 죽음이 되고, 또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돼서, 영원한 지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이고, 승천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영역이 생겨난 겁니다.
세상에서 죽어서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이야기와 사상은 세계 도처에서 신화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역사적인 부활하신 그런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승천까지 하신 것도 주님 밖에 없습니다.
승천하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주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아버지 보좌 우편까지 이어지는 이 공간과 이 영역은, 예수 그

리스도라는 문패가 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역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영역을 만들어 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패가 걸려 있는 이 영역, 십자가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까지,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바울서신 전체를 놓고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죽었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세상 걱정으로 빠져 들어가면 주님 바깥으로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힌바 되었다'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공간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우리 마음이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머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영역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안과 밖을 구분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는데, 마음이 사업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현장에 마음이 다 가있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깊이 빠져들어 갑니다.
예수님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어부가 동굴을 깊이깊이 지나서 동굴이 끝나는 자리에서 별천지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세상 인간사회와는 격리된 다른 세상으로 동굴을 통해 들어간 것처럼, 주님 안으로 거하려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인간사회로부터 빠져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 안으로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살아 있는 자가 되어서 이일 저일, 가정일, 사업일, 직장일, 결혼일, 입학 진학, 애 키우는 일, 이런 일에 마음이

연루되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십자가 저편으로 넘어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저편으로 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걱정이 팍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 걱정을 주는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지 말고, 기도하러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붙잡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죽으면서 세상을 빠져 나오는 겁니다.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어부가 동굴로 들어가서 이 인간 세상을 빠져 나가듯이 빠져 나가는 겁니다.
빠져 나가서, 내 마음이 걱정 되고 있는 마음이, 승천하신 주님과 하나님아버지와 천국에 의해서 채워지고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평안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별천지인, 십자가 죽음부터 보좌 우편까지 이어지는 그 공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마음이 세상에 빠져 나가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뭡니까?
보통 사람에게도 열매가 맺혀져요,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위로 나타냅니다.
생각이 씨라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면 의도도 있을 수 있고 계획도 있을 수 있고, 생각 속에는 소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열매는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위로.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 안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안에 머뭅니다.
십자가에서 보좌 우편까지 연결되는 그 공간 안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만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 안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씨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업문제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마음이 그 사업에 빠지지 않고 주님

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 머물러 있으면서, 그 보좌 우편까지 이루어지는 그 세계 속에서 마음에 평강을 되찾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씨앗을 넣어 주십니다.
그 씨앗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열매 맺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것이고, 어떡하면 나한테 하나님의 생각이 주어집니까?
열매를 맺게 될 씨가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러므로 내 생각의 씨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씨로 내게 임해서 열매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릉도원의 평강과 무릉도원의 그 열매가 다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비현실이 아니에요, 이상향이 아닙니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죽음이라는 동굴을 지나가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내 가정에서고 내 직장에서고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나면 날수록 십자가 붙잡고 동굴을 지나서 별세계로 빠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망하려면 망해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빠져 나가서, '내 마음이 세상 일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지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데, 하나님! 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거처로 삼아주세요!'
그럴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에 의해서, 내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때 이 세상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 내게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열매 맺게 될 때, 직장이고 가정이고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향이 아니고 뭡니까?

이상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릉도원이 아니고 뭡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포인트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부터 보좌까지의 공간, 여기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빠져 나가는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께서 도연명이 무릉도원을 묘사하기 전에, 이미 400년 전 실제 무릉도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것으로 삼게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로부터 보좌 우편까지 이어지는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 있게,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